

# 담양군, 대나무 펄프 종이컵 지원 탄소 저감 '앞장'

자매결연 중국 의빈시서 25만개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수입 통관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신청·접수 유해물질 배출 없어 탄소 저감 탁월

담양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국 쓰촨성 의빈시에서 제조된 대나무 펄프 종이컵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나무 펄프 종이컵 지원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의빈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의 하나로 양 도시 간 우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종이컵 및 뚜껑 25만개를 제작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완료했다.

종이컵과 뚜껑은 관내 음식점과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 및 종이컵을 사용하는 소매점 등에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담양군 관공과에서 사용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의빈시에서 제작한 종이컵과 뚜껑은 대나무 펄프를 원료로 제작됐으며 종이컵의 디자인 또한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담았다.

대나무는 다른 펄프용 목재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가져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용기는 매립이나 소각 시에도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탄소 저감에도 탁월하다는게 담양군의 설명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관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카페에 대나무 종이컵을 지원



담양군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중국 쓰촨성 의빈시에서 제조된 대나무 펄프 종이컵을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지원 한다. 담양군 제공

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담양의 대표 관광 아이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

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농업인의 날 기념 가래떡 나눔 농협전남본부, 농산물 소비촉진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회장 홍영신)와 함께 지난 11일 '전남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가래떡데이를 알리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박종택 본부장, 홍영신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장에 방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5000여개의 가래떡을 나눠드렸다.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은 정부가 1996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올해로 29회를 맞았으며 전남농협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래떡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박종택 본부장은 "올해 어려운 농업여건에도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 주신 전남 농업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래떡 나눔을 마련했다"며 "전남농협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쌀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2024 석천사 산사음악회 화순군, 16일 오후 5시



화순군은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도곡면 석천사에서 '2024 석천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기념으로 처음 개최된 석천사 음악회는 매년 봄과 가을을 맞아 두 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9일 제3회 석천사 힐링음악회를 성료했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석천사가 주관하는 이번 석천사 산사음악회는 석천사 주지 혜문스님 등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민해경, 조장혁, 김범룡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상영 문화예술과장은 "많은 분이 이번 석천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얻고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내평리 길쌈노래 민속공연 화순군, 16일 길쌈마루 마을서

화순군은 내평리 길쌈노래 민속공연이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내평리 길쌈마루 전수관과 마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내평리 길쌈노래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4호로 지정되어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내평리 길쌈노래는 2015년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받았고 전남도 대표로 출전한 2016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화순군은 이번 공연이 주민들이 직접 모종을 심고 키운 무명밭에서 시연될 예정으로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예술과(061-379-317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한천농악보존회원들이 전수관 일원에서 한천농악을 선보이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한천농악 무형유산 공개행사

2024년 한천농악 보존·전승을 위한 공개행사 한천농악 대동한마당 잔치가 지난 9일 화순군 한천농악 전수관에서 펼쳐졌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대동한마당은 2024년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공개행사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일부터 한천농악 전수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천농악의 장단가락을 교육하고 한천농악보존회 회

원과 한천 농악 가락을 전수한 각 농악단 회원, 지역민과 관광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공연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자랑했다.

한천농악 전수관에서는 한천농악 가락을 활용하여 장구·다듬이·난타·북·꽁과 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를 통해 한천농악을 배우고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겨왔다. 화순=김선종 기자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화순문화원·정봉면·능주면·동복면·사평면 등에서 농악패가 함께 해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고 친목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한편 한천농악은 전남도 무형유산 제6호로 지정되어 화순은 물론이고 남도를 대표하는 농악으로 명성이 높다.

한천농악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농악으로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서도 한천농악의 원형을 잘 간직된 뛰어난 무형유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화순=김선종 기자

## 화순군, 난 명품 박람회 성료

### 한국 춘란 등 1000여점 전시

화순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춘란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난 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난보존협회와 화순난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관해 치러졌다. 1000여 분의 난들이 박람회를 아름답



게 수놓은 가운데 허점길(한국난보존협회)의 아가씨(중투호)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며 많은 애란인의 축하를 받았다. 화순=김선종 기자

다.

2등 상인 '특별 대상'은 배용일(복륜반), 예정원(중투호)이 3등 상인 '최우수상'은 조동락(단엽복륜), 서홍열(단엽서반), 김호진(단엽중투)에게 돌아갔다.

행사에서는 전시회와 함께 난 판매전, 난 경매, 화순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됐으며 다양한 선물용 난 예시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매년 봄, 가을에 전국 난 행사를 개최하여 난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난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소득화의 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장성군, 12월15일까지

장성군이 건기를 맞아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장성군은 대형산불 사전방지를 위해 산림편백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기술 협회 소속 전문가 초빙교육을 가졌다. 산불 발생 시 정확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산불진화 안전수칙, 산불진화 방법, 단계별 진화전략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군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황룡강 일원에 소방용 헬기를 주둔시키는 등 신속 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다수의 산불이 불법 소각행위에서 기인하고 있어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반도 운영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병현 기자

